



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여부 논란과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신흥국 투자자금이 대규모 이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.
 -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월 말 2.13%에서 6월 10일 2.21%까지 상승하였고 미국, 일본, 영국 등 주요국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인도 루피화 가치가 5월 말 대비 7.5% 하락하는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.
 -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여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,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이 출구전략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음.
 - 또한 6월 11일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.

- 5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조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나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부분 2013년 내 출구전략 시행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6월 7일 미 노동부는 5월 실업률이 7.6%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1월 7.9%를 기록한 이후 4월 7.5%까지 지속되어 온 하락세가 중단된 것으로 시장 예상치 7.5%도 상회한 것임.
 -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내 5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.1%가 2013년 9월부터 연준이 채권 매입규모를 축소하는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, 27.0%는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연준이 2013년 내에는 출구전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코노미스트는 35.1%로 나타남.

- 미 연준의 출구전략 우려는 5월 22일 버냉키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채권 매입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작됨.

- 5월 22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의회 연설에서 당분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고용시장과 경기회복세에 따라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함.
 - 또한 5월 22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의사록에서 양적완화의 조기종료를 주장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양적완화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뉴욕 연준총재가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짐.
- 한편 6월 10일 미국 신용평가사 S&P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‘부정적’에서 ‘안정적’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미 연준의 양적완화 중단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함.
- S&P는 2011년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+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이후 신용등급 전망을 ‘부정적’으로 유지해 왔으나 6월 10일 신용등급은 AA+를 유지하면서 신용등급전망을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함.
 - S&P는 미국 경제가 2013년 2.0~2.5% 성장하고 2014년에는 3%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경제회복에 신뢰를 나타냄.
 - 또한 연준의 양적완화 중단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준의 출구전략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.
- 연준의 출구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자금이동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이 예상되지만 저금리 환경의 개선으로 보험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- 미 연준의 출구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자금유출이 나타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음.
 - 그러나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산업에는 경영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.

(Financial Times 등)